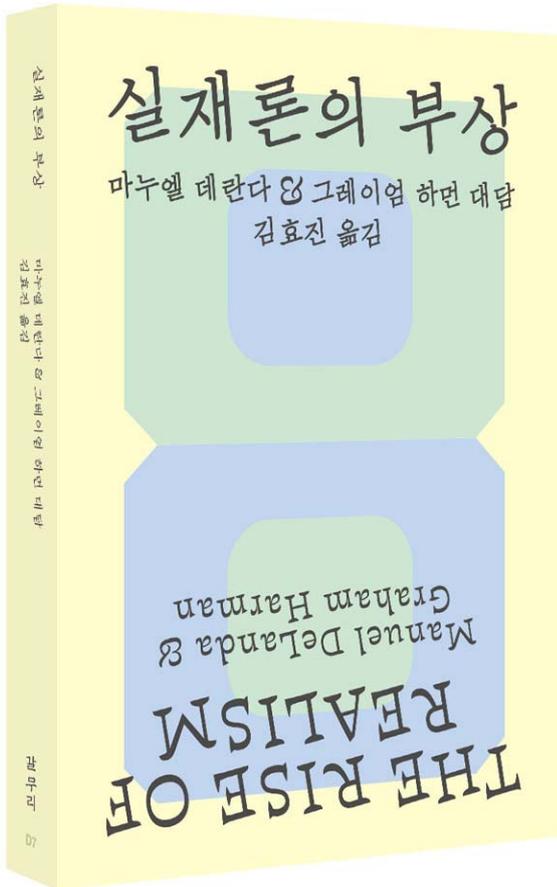


# 실재론의 부상

*The Rise of Realism*



최근의 대륙철학에서 인간에게서 독립적인 사물의 실재성과 물질성, 행위성을 강조하는 사조들이 발흥한 현상, 즉 ‘실재론의 부상’이 나타난 까닭은 무엇일까?

위대한 철학은 평범한 것에서 숭고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사유와 성찰의 주제로 삼는데, 『실재론의 부상』 역시 그러하다. 이 책은 초심자와 전문가를 막론하고 다 같이 큰 흥미를 느낄, 신유물론과 객체지향 존재론 둘 다에 대한 뛰어난 입문서이다. — 레비 R. 브라이언트, 『존재의 지도』 지은이, 콜린 칼리지 교수

마누엘 데란다·그레이엄 하먼 대담  
김효진 옮김

디אל로고스총서7 출간일: 2025년 1월 25일 쪽수: 320쪽 가격: 22,000원 판형: 사륙판 130X188  
무게: 324g 도서분류: 실재론, 신유물론, 객체지향 존재론, 사변적 실재론, 현대철학  
ISBN: 978-89-6195-373-3 93100

## 보도자료 차례

1. 간략한 소개 2. 상세한 소개 3. 지은이·옮긴이 소개 4. 책 속에서 5. 목차 6. 『실재론의 부상』 관련 도서 안내



## 1. 『실재론의 부상』 간략한 소개

이 책에서는 오랫동안 실재론자로 자처해 온 두 명의 철학자, 마누엘 데란다와 그레이엄 하먼의 대답이 펼쳐진다. 꽤 최근까지 대륙철학 전통에서 훈련받은 거의 모든 철학자는 실재론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대륙철학에서는 실재론이 일반적으로 사이버 문제로 여겨졌다. 그런데 사정이 더는 그렇지 않다. 이 자극적인 새 책에서 두 명의 선도적인 철학자는 대륙철학적



마누엘 데란다 Manuel DeLanda, 1952~



그레이엄 하먼 Graham Harman, 1968~

전통에서 실재론이 두드러지게 부상하고 있는 현상을 놓고 자신들의 고유한 입장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사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고찰한다. 데란다와 하먼은 실재론과 유물론, 실재론과 반실재론, 실재론적 존재론, 인지와 경험, 시간, 공간, 과학 등의 주제에 관해 토론한다. 또 이들은 더 잘 알려진 대륙철학적 입장과 방법들, 특히 들뢰즈의 ‘잠재영역’ 존재론이나 후설주의적 현상학으로부터 자신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들과 자신들의 입장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에 관해 서로의 생각을 교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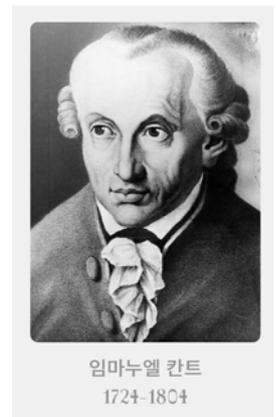
생생하고 가독성이 있으며 몰입하게 하는 이 책은 대륙철학에서 실재론의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밝히기 위해 여태까지 실행된 시도 중 최선의 것이다. 이 책은 대륙철학의 학생들과 학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철학과 비판 이론에서 벌어지는 최첨단의 논쟁들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가치가 있을 것이다.

## 2. 『실재론의 부상』 상세한 소개

### 실재론 : 세계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실천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다

『실재론의 부상』이라는 이 책의 제목은 ‘대륙철학’에 뿌리를 둔 몇 가지 철학 사조의 최근의 추세를 가리킨다. 21세기 이후 대륙철학에서는 ‘사변적 실재론’, ‘신실재론’, ‘신유물론’, ‘객체지향 존재론’, 그리고 ‘평평한 존재론’ 등의 철학적 기획들이 나타났다. 이런 기획들은 세계의 존재자 및 현상과 관련된 이런저런 종류의 ‘실재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 대륙철학의 입장들과 방법들을 특징지었던 것은 다양한 관본의 관념론과 반실재론이었다. 최근의 실재론들은 이러한 과거의 경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실재론들은 포스트칸트주의적인 관념론들과 더 최근의 사회·언어·문화 구성주의들로 대표되는 인간중심주의적인 반실재론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새로운 ‘대륙’ 실재론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출발점은 ‘인간의 마음 및 실천과 독립적인’ 세계의 실재를 단호하게 긍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자와 현상의 본성들과 관계들은 어떤 주관적이거나 언어적인, 또는 사회적인 형태의 인간 지각, 인간 인지, 인간 표상 등에 의거해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나 접근에 관한 물음과는 전적으로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실재론자들은 주장한다.



임마누엘 칸트  
1724-1804

## 실재론 부상의 원인 : 인류세, 기후위기, 생태위기

최근의 대륙철학에서 인간과 독립적인 사물의 실재성, 사물의 물질성, 사물의 행위성을 강조하는 사조인 '실재론'들의 부상이 나타난 까닭은 무엇일까?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로 특징지어지는 인류세 시대는 폭염, 초강력 폭풍, 홍수, 기근, 팬데믹, 멸종 등을 일상적인 조건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도 아니고 세계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비인간의 실재성과 행위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실재론자들에 따르면 대륙철학의 전통을 대표하는 포스트칸트주의적 관념론과 구성주의 이론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적인 기본 도식을 채택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는 인류세 시대의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문명적 위기를 성찰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철학적, 윤리적, 정치적 질문들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현실이 인간중심주의 관점에 반기를 드는 실재론적 존재론이 전 세계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배경이다.

## 책의 구성

이 책은 대답의 주제에 따라 구분된 다섯 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실재론과 유물론」에서 데란다와 하먼은 실재론의 역사를 논한다. 주로 대륙철학 전통에서 실재론에 부여된 지위, 실재론과 유물론의 관계를 주제로 삼는다. 데란다는 유물론을 “물질적 세계를 초월하는 모든 존재자를 거부하는 일종의 실재론”으로 정의하면서 “강렬히 실재론적인 동시에 강력히 유물론적인” 철학, 이른바 ‘신유물론’을 견지한다. 한편, 하먼은 유물론이 객체를 그것의 구성요소들로 환원하거나 그것의 효과들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로 유물론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이른바 “유물론 없는 실재론”을 견지한다. 데란다와 하먼의 실재론적 존재론들은 실재론을 사이비 문제로 치부하거나 실재론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유물론적 구상에 전념해온 대륙철학적 전통에 선전 포고하는 급진적인 철학들로 간주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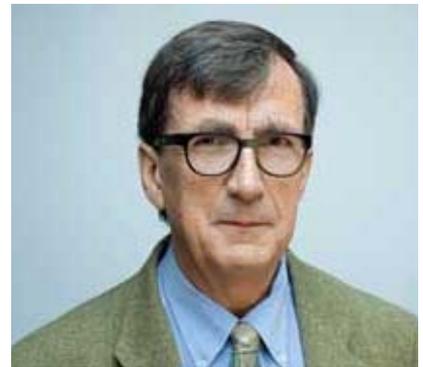
2부 「실재론과 반실재론」에서 데란다와 하먼은 실재론과 반실재론이라는 두 개념 사이의 차이를 논의한다. 두 대답자는 리 브레이버의 저작에 기반하여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핵심 테제들을 명료하게 표현한다. 여기서 데란다와 하먼은 실재론/반실재론 논쟁의 쟁점들을 분명히 밝히고, 반실재론이 대륙철학의 전통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대륙철학의 최신 사조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음을 서술한다. 특히, 두 대답자는 관계와 관계주의의 개념들을 가능한 한 정확히 규정하려고 노력한다. 하먼은 화이트헤드, 라투르, 버라드가 관계들을 그것들에 선행하는 관계항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로 개념화한다는 이유로 비판한다. 하먼은 그들을 반실재론자들로 규정한다. 한편, 데란다는 “어떤 관계항의 바로 그 정체성을 구성하는 내부성의 관계들”은 수용하지 않고 단지 외부성의 관계들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부 「실재론적 존재론」에서 데란다와 하먼은 신유물론과 객체지향 존재론의 주요 언표들에 집중하면서 실재론적 존재론을 논의한다. 여기서 그들의 대답은 본질(essence)과 성향(disposition)이라는 개념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존재론에 의지하는 하먼은 ‘본질’이 없다면 객체를 정합적인 존재자로 해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들뢰즈주의적 존재론에 의지하는 데란다는 본질이라는 개념이 비합법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두 대담자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역량으로서의 성향에 대하여 열띤 논쟁을 벌인다. 하먼은 성향을 사물에 귀속시키기를 거부하면서 일종의 관계적 양태로 간주하는 반면에, 데란다는 객체의 정체성을 현실적 특성들과 잠재적 성향들의 조합으로 규정한다.

4부 「인지와 경험」에서 데란다는 하먼의 대답은 **인지와 경험에 관한 물음을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두 대담자는, ‘인식론’이라는 용어가 인간과 그 밖의 모든 것 사이의 관계에 특권을 부여하는 이원론적 존재론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존재론적 의문은 인식론적 의문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먼은, 객체의 본질적 양태들이 필연적으로 물려서 있다는 논점과 객체에 대한 접근이 언제나 ‘번역’ 과정에 의해 매개된다는 논점을 강조함으로써 인지에 대한 그의 접근법을 설명한다. 데란다는 이론은 객체와 경험적 패턴 사이의 ‘변환’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한편, 체화된 인지와 선택적 주의집중 과정의 생물학적 기원에 주목한다. 여기서 두 학자가 공유하는 통찰은, **객체의 근본적인 물려섬에서 기인하든 자연의 개방적 특질과 과거의 추적 불가능성에서 기인하든 간에, 절대적 지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5부 「시간, 공간, 그리고 과학」에서 데란다는 하먼은 **시간, 공간,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개념적 딜레마들을 논의한다**. 하먼은 ‘실재적 시간’을 객체들의 배치의 공간적 변화와 등치시키고 ‘감각적 시간’을 “객체들의 상태들의 비가역적인 순서열”의 파생물인 관계적 존재자로 규정한다. 요컨대, 하먼은 “우리가 시간을 실재적인 것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저는 제가 시간에 대한 실재론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다. 반면에, 데란다는 시간에 관한 이런 비실재론적 철학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실재적 시간의 비가역성을 강조한다. 또한, 데란다는 ‘강도’(intensity) 개념에 대한 매우 유용한 분석도 제시한다. 여기서 두 대담자는 **라투르에 대하여 열띤 논쟁을 벌이면서 지식, 의미론, 반증, 그리고 진리 규정을 논의한다**.



브뤼노 라투르 Bruno Latour, 1947~2022

## 데란다는 ‘신유물론’과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 수렴과 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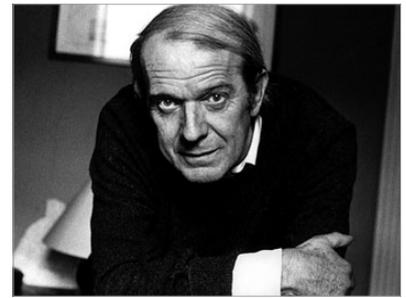
『실재론의 부상』에서 데란다는 하먼은 지난 20여 년간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발전시킨 자신들의 독특한 철학적 신념들에 관해 논의한다.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의 저자인 마누엘 데란다는 ‘신유물론’(neo-materialism)의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이다. 얼마 전 한국 EBS 방송국의 ‘위대한 수업’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미국의 철학자 **그레이엄 하먼은 사변적 실재론의 한 갈래인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을 창시한 사람이다**.

### 데란다는 실재론

데란다가 추진한 실재론적 기획의 철학적 근거는 2002년에 출간된 데란다는 저서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에서 제시되었다. 데란다는 실재론은 역동적 과정들에 관한 들뢰즈의 미분적 존재론과 그 과정들의 발생, 진화, 전개, 그리고 변환을 위한 형식적·구조적 조건들에 대한 들뢰즈의 ‘실재론적’ 태도에 기초한다. 데란다는 동역학적 체계들을, 쌍갈림, 끌개, 그리고 그 밖의 독특한 위상수학적 양태들로 특징지어지는 위상 공간에서 나타나는 그것들의 비선

형적 움직임에 의거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틀은 인간-비인간의 구분에 구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모, 영역, 체계에 걸쳐 생겨나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창발의 역동적인 과정들도 설명할 수 있다고 데란다는 말한다.

예를 들면, 『천 년의 비선형적 역사』에서 데란다는 지난 천 년의 세계 역사의 모델링에 비선형 동역학을 독창적으로 적용했다. 그리하여 그는 진보 또는 직접적인 역사적 발전의 어떤 선형적인 서사도 부정하면서 인간적·지질학적·생물학적 현상들, 과정들, 그리고 사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복잡한 동역학을 옹호한다. 『실재론의 부상』에서 데란다는, 그러한 잠재태의 비선형 동역학이 객체들과 형태들의 외관상 안정적인 정체성을 “그 정체성의 역사적 생성과 일상적 유지의 배후에 자리하는 창발 메커니즘들로 설명하는” 더 넓은 틀 안에 포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질 들리즈 Gilles Deleuze 1925~1995

### 그레이엄 하먼의 실재론



마르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1889~1976

한편, 그레이엄 하먼은 ‘객체지향 존재론’이 하이데거에 대한 자신의 실재론적 독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하먼은 『존재와 시간』에서 제시된 하이데거의 도구-분석을 하이데거 철학 전체의 핵심으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주류 하이데거 해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면에서 자신의 해석은 비정통적인 것이라고 하먼은 말한다. 하먼은 2002년 출간한 저서 『도구-존재』에서 하이데거에 관한 이러한 주장을 했다.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은 객체들을 그것들이 서로 맺은 다양한 역동적인 관계에 의거하여 특징짓는 것에 반대한다. 하먼이 보기에 오히려 객체들은 자신이 맺고 있는 그 관계들의 총체에서 ‘물러서는’ 방식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 ‘물러섬’으로 인해서, 객체지향 존재론(줄여서 OOO라고도 쓴다)에서는 어떤 객체도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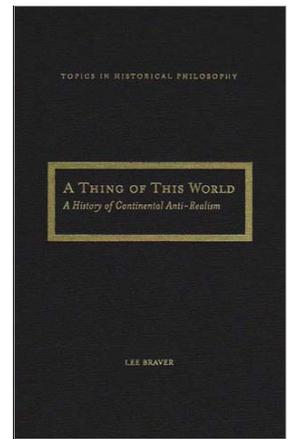
이해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실재론의 부상』의 여러 곳에서 하먼이 강조하듯이 이런 생각의 선례는 후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하먼은 후설의 입장을 뒤집어서, 유의미한 구조를 갖추고 있을지라도 어떤 다양한 인식적인 외부 관계에 의해서도 직접 인식되지도 않고 망라되지도 않는 ‘실체적 형상들’ 또는 ‘특이한 본질들’의 현존을 승인한다. 이런 구상에 근거함으로써 하먼은 객체를 더 단순한 구성요소들로 환원하려는 모든 시도(이른바 ‘아래로 환원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객체를 더 넓은 관계적 네트워크 속에서의 그것의 위치에 의거하여 설명함으로써 환원하려는 모든 시도(이른바 ‘위로 환원하기’) 역시 거부한다.

### 실재론의 다양성 : 실재론적 테제들과 반실재론적 테제들

철학적 논의에서 ‘실재론’은 다양한 방식과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실재론의 부상』에서 데란다는 하먼은, 2007년에 출간된 리 브레이버의 책 『이 세계라는 것 : 대륙적 반실재론의 역사』(A Thing of This World : A History of Continental Anti-Realism)에 제시된 실재론 테제(R)들과 반실재론 테제(A)들을 확장하여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존재론적 목록을 제시한다.

- R1/A1 세계는 마음에 의존하지 않는다/의존한다.
- R2/A2 진리는 대응이다/대응이 아니다.
- R3/A3 세계가 어떠한지에 관한 하나의 참된 완전한 서술은 존재한다/존재하지 않는다.
- R4/A4 모든 언표는 반드시 참 아니면 거짓이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 R5/A5 지식은 그것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수동적이다/수동적이지 않다.
- R6/A6 인간 주체는 어떤 고정된 특질을 지니고 있다/있지 않다.
- R7/A7 철학의 경우에 인간 주체가 맺은 관계는 특권적인 관계가 아니다/관계이다.
- R8/A8 세계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전체론적 존재자가 아니다/존재자이다.
- R9/A9 주관적 경험은 언어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구성된다.



실재론적 존재론이 견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은 R1 테제, 즉 마음-독립적인 세계의 현존이다. 그런데 데란다와 하먼이 주고받는 대담의 직접적인 맥락을 형성하는 ‘사변적’ 실재론과 ‘신’실재론의 경우에 가장 주요한 신념은 『유한성 이후』의 저자 쾨팅 메이야수가 ‘상관주의’라고 일컬은 A7 테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물자체를 가정하고 “인간-세계 상호작용이 세계 속 객체-객체 상호작용과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라고 가정한 칸트의 ‘상관주의적’ 존재론은 R1/A7 연접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독일 관념론은 “R1 물자체를 본체가 한낱 현상의 특별한 일례에 불과한 A1 입장으로 뒤집”은 A1/A7 연접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하여 데리다와 하먼에 따르면, 세계에 관한 실재론적 존재론(R1/R7 연접)은 인간 주체성, 행위성, 지식, 또는 언어에 의해 조건지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객체들과 과정들 ‘자체’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서술되어야 한다.

## 데란다의 견해와 하먼의 견해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

데란다와 하먼은 A7 테제를 견지하는 모든 ‘인간중심적’ 접근법을 거부하는 데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실재론적 존재론들의 세부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하먼의 존재론은 자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존재자들로 여겨지는 객체들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각각의 객체는 언제나 파악될 수 없지만 개체화된 특이한 본질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반면에, 데란다의 존재론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역사적 과정들의 존재론으로, 개별적 존재자들 또는 ‘객체들’은 이런 광범위한 동역학의 순간적으로 안정적인 배치물들로서 출현할 따름이다.

이와 밀접히 관련된 사실은 데란다와 하먼이 자연과학적인 설명의 방법론적 역할에 관해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란다의 경우에 자연과학적인 설명은 세계 속 현상의 변화와 전개를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것인 반면에, 하먼의 경우에 주요한 것은 오히려 자신의 외양들 또는 관계들의 총체의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객체에 관한 ‘미학적’ 패러다임이다.

또한 데란다는 자신이 “패턴을 갖춘 물질-에너지에 내재적인 존재자들의 존재를 믿을 따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유물론적 실재론’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하먼은 “유물론 없는 실재론”을 옹호한다. 하먼은 소설의 등장인물 같은 허구적 객체들처럼 “물질 없는 형태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질이라는 개념에 “실제적 사물과 가상적 사물 사이의 차이에 대한 허약한 설명으로서의 용도 이외에 어떤 효용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데란다와 하먼이 공히 거



캐런 바라드 Karen Barad 1956~

부하는 입장은 이른바 “실재론 없는 유물론”이다. 그들은 “객체의 실재는 그것이 마음과 갖는 상호작용들로 이루어져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하는 캐런 바라드의 ‘유물론적’ 견해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공유한다.

이 대답을 마무리하면서 하먼은 자신의 견해와 데란다의 견해 사이에는 네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요약한다. 첫째, 데란다는 존재자들의 ‘역동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하먼은 객체들의 ‘관성’을 중시한다. 둘째, 데란다는 “철학을 과학의 작업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지식 형태”로 간주하는 반면에, 하먼은 철학의 “모범 사례가 미학”이라고 여긴다. 셋째,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은 개별적 존재자들에 집중하는 반면에, 데란다의 신유물론은 위상 공간과 끝개 같은 외부 인자들을 개념화한다. 넷째, 하먼에게는 ‘형상인’이 중요한 반면에, 데란다에게는 ‘목적인’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약에 데란다는 객체지향 존재론의 ‘물러섬’ 개념과 실제적 시간을 부인하는 태도에 대한 자신의 이견을 덧붙인다.

독자들을 몰입하게 하는 대화체로 서술된 이 책은 실재론에 대한 훌륭한 입문서이며, 실재론과 유물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유용한 참고서이다. 데란다와 하먼의 기획들에 공감하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신유물론 학파의 보다 더 ‘실재론적인’ 발전 또는 보완에 대한 우리 시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독자들도 이 대답에서 시사적이고 유익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3. 지은이, 옮긴이 소개

#### 지은이 마누엘 데란다 Manuel DeLanda, 1952~

멕시코 출신의 저술가 겸 철학자. 현재 유럽대학원대학교에서 질 들뢰즈 석좌교수 및 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프린스턴대학교 건축대학과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디자인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현대 신유물론의 선도적인 철학자로서 그의 작업은 질 들뢰즈와 펠릭스 과타리의 이론을 중심으로 복잡계 과학, 혼돈 이론, 비선형 동역학, 인공생명체와 인공지능, 경제학, 건축, 과학철학 및 과학사 등의 주제를 아우른다. 주요 저서로 『지능기계 시대의 전쟁』,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 『새로운 사회철학』, 『들뢰즈』, 『실재론의 부상』 (공저) 등이 있다.

#### 지은이 그레이엄 하먼 Graham Harman, 1968~

미합중국 아이오와 출신의 철학자. 2000년부터 최근까지 카이로 소재 아메리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고 현재 남가주건축대학교 철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변적 실재론 운동을 선도한 핵심 인물이다. 『아트 리뷰』에 의해 세계 예술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00인 중 한 사람으로, 또 존재론 분야 파울로 보찌 상의 2022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네트워크의 군주』, 『쿼드러플 오브젝트』, 『브뤼노 라투르』, 『비유물론』, 『실재론의 부상』 (공저), 『사변적 실재론 입문』, 『예술과 객체』, 『건축과 객체』, 『반시대적 객체』 (공저) 등이 있다.

#### 옮긴이 김효진 Kim Hyojin, 1962~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였으며 인류세 기후변화와 세계관의 변천사에 관심이 많다. 옮긴 책으로 『네트워크의 군주』,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객체들의 민주주의』, 『질 들뢰즈의 사변적 실재론』, 『#가속하라』, 『사물의 통치』 등이 있다.

## 4. 책 속에서

하먼 : 저는 당신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너무 심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적 사물들을 제일 실체로 간주하며, 그리고 그의 경우에 이런 개별적 사물들은 일반적으로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아는 한에서) 실체적인 것을 파괴될 수 없는 것과 동일시하지 않은 최초의 서양 철학자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진전입니다.

— 1부 실재론과 유물론, 35쪽

데란다 : 구체적인 역사적 개별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존재론의 일부일지라도 그것들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유와 종차에 관한 선형적 지식을 보유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에 선형적 지식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 1부 실재론과 유물론, 37쪽

하먼 : 때때로 저는 “인간 없는 예술은 어떤 모습입니까?”와 같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멸종된 파국 이후의 세계 속 예술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인간의 어떤 특정한 해석에 의해서도 망라되지 않는 것으로서의 예술에 관해 이야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 2부 실재론과 반실재론, 85쪽

데란다 : 주체성의 경우에는 흄에 대한 들뢰즈의 독해가 우리에게 한 가지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주체성의 경우에 습관(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활동)은 어떤 안정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흄은 습관만을 고려했을 뿐이지만, 저는 기량도 추가할 것입니다.

— 2부 실재론과 반실재론, 100쪽

하먼 : 저는 하이데거의 본질 개념이 정말로 놀라운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체로 아무도 설득시키지 못한 채로) 하이데거의 주요한 필생의 적이 그가 눈앞에-있음이라고 일컫는 것 — 그가 후설주의적 현상학에 대한 오랜 비판뿐만 아니라 부러진 망치의 사례에서도 도입하는 전재성 —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간단히 서술하면, 현전은 하이데거의 주적이고 부재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 3부 실재론적 존재론, 110쪽

데란다 : 유감스럽게도, 만약 누군가가 인간의 마음이 잠재적인 것을 현실화하는 행위자라고 믿고 있다면 그는 들뢰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뢰즈의 잠재 영역 존재론의 요점은 바로 그것의 이념적 연속체가 별개의 현실적 객체들로 분할된다는 것입니다. 들뢰즈의 경우에 현실화 과정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전적으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이산적인 개별적 존재자들을 산출하는 이런 분할 과정입니다.

— 3부 실재론적 존재론, 120쪽

데란다 : 저는 물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물질’이라는 표현을 접할 때 크게 우려하는 감정을 갖게 되곤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수학에 대하여 당신이 제기한 주장은 옳습니다. 수학적 모형이 그것이 모형화하는 것에 부합한다고 믿는 사상가들은 물리학에서 수행되는 이상화의 인지적 역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학적 모형은 결코 현실적 객체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 4부 인지와 경험, 186쪽

하먼 : 우리가 지식의 한계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객체지향 철학은 칸트가 옹호한 유한성은

수용하는 한편, 삼단논법의 구조에서 도출되든 여타의 것에서 도출되든 간에 영구적인 범주 목록을 작성하려는 야망은 전혀 없습니다.

— 4부 인지와 경험, 201쪽

데란다 : 우리가 '시간의 화살'이라는 표현에 너무 어리둥절해질 필요는 없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 이루어진 실제 논증은 사건들을 담는 어떤 우주적 용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들의 계열적 배열들의 시간적 순서가 관찰자와 무관하게 그 결과물에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5부 시간, 공간, 그리고 과학, 244쪽

하먼 : 우리가 시간을 실재적인 것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저는 제가 시간에 대한 실재론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는, 화학 반응이 두 가지 이상의 반응물이 상호작용할 때 현존하는 크고 작은 장벽으로 인해 더 느리거나 더 빠르게 진행되는 한에서, 당신이 사건의 느낌과 빠름이라고 일컫는 것이 시간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간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5부 시간, 공간, 그리고 과학, 245쪽

## 5. 목차

그레이엄 하먼의 한국어판 서문 5

1부 실재론과 유물론 13

2부 실재론과 반실재론 61

3부 실재론적 존재론 103

4부 인지와 경험 183

5부 시간, 공간, 그리고 과학 239

참고문헌 296

인명 찾아보기 307

용어 찾아보기 312

## 6. 『실재론의 부상』 관련 도서 안내



『사변적 실재론 입문』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3)

이 책은 사변적 실재론 운동의 최초 구성원 중 한 명이 집필한 일반 개론서다. 그레이엄 하먼은 사변적 실재론 운동에 가장 중요한 미학적·윤리적·존재론적·정치적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하먼은 자신의 객체지향 존재론에 대한 요약과 제시하며 최초의 사변적 실재론 동료들인 레이 브라지예, 이에인 해밀턴 그랜트 그리고 쾨팅 메이어아수에 대한 비판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평가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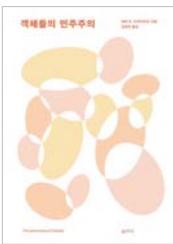
『예술과 객체』 (김효진 율김, 갈무리, 2022)

미학을 제일철학으로 주장하면서 예술의 자율성과 아름다움에의 귀환을 선언하는 책! 하먼은 실재적 객체와 감각적 성질 사이의 균열로 규정되는 ‘아름다움’의 기준 아래에서 ‘아름다운 것’으로서 ‘예술적 객체=객체+감상자’의 혼성 객체라는 테제를 제시한다. 이 테제를 기반으로 그는 비근대주의적이고 비관계주의적인 객체지향 미학으로서 ‘기이한 형식주의’를 도발적으로 제시한다.



『존재의 지도 : 기계와 매체의 존재론』 (레비 브라이언트 지음, 김효진 율김, 갈무리, 2020)

자연주의와 유물론을 당당히 옹호하는 한편으로, 이들 친숙한 관점을 변화시키고 문화 자체가 어떻게 자연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보여준다. 브라이언트는 범생태적 존재론을 지지하는데, 요컨대 사회는 담론과 서사, 이데올로기 같은 기표적 행위 주체들과 더불어 강과 산맥 같은 비인간의 물질적 행위주체들도 고려함으로써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생태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브라이언트는 새로운 기계지향 존재론의 토대를 구축한다.



『객체들의 민주주의』 (레비 브라이언트 지음, 김효진 율김, 갈무리, 2021)

칸트 이래로 철학은, 마음과 세계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객체에 대한 인간의 접근과 관련된 인식론적 물음들에 사로잡혔다. 브라이언트는 우리에게 이런 전통과 단절하고 다시 한번 제일 철학으로서의 존재론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브라이언트는 그레이엄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뿐만 아니라 로이 바스카, 질 들뢰즈, 니콜라스 루만, 아리스토텔레스, 자크 라캉, 브뤼노 라투르, 그리고 발달 체계 이론가들에게 의지함으로써 자칭 ‘존재자론’(onticology)이라는 실재론적 존재론을 전개한다.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브뤼노 라투르 지음, 홍철기 율김, 갈무리, 2009)

이 책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연구해온 인류학자인 저자 브뤼노 라투르가 근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방식에 던지는 독특하고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탈근대주의의 근대성 비판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라투르가 말하는 근대인의 본질은 이분법이 아닌 ‘하이브리드’의 증식이다. ‘하이브리드’의 이해를 통해서만 사회와 자연, 정치와 과학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치·사회적 위기와 환경·기술적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 : 잠재성에서 현실성으로』

(마누엘 데란다 지음, 김영범·이정우 율김, 그린비, 2009)

들뢰즈의 ‘잠재성의 존재론’을 현대 수학, 물리학, 생물학 이론을 동원해 과학철학적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들뢰즈에게 잠재성은 현실성과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채 끊임없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역동적인 창발성의 영역이다. 과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실험영화 작가 등 다양한 이력을 지닌 저자 마누엘 데란다는 들뢰즈의 존재론과 문제론적인 인식론을 통해 소수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치철학과 미학, 윤리학으로 향하는 ‘생명의 존재론’의 토대를 놓고 있다.



『지능기계 시대의 전쟁』 (마누엘 데란다 지음, 김민훈 율김, 그린비, 2020)

현대 신유물론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작가, 예술가, 철학자로 활동하는 마누엘 데란다의 첫 저서이다. 들뢰즈의 전쟁기계와 기계적 필름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푸코, 복잡계 과학, 그리고 데란다만의 독특한 군사, IT 기업과의 실무적인 지식을 통합해서 전쟁과 기술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다.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도착한 『지능기계 시대의 전쟁』은 인간 너머의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포스트 휴먼의 시대가 일찍이 우리에게 도래했음을 알려준다. “인간은 인간 이후의 세계를 사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해답인 셈이다.